



07-40 (통권 167호)  
2007.10.05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국제원자재 가격, 강제 기조 유지
- 9월 무역수지 24.9억 달러 흑자

## 경영 노트

- GE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투명성

## 사회 트렌드

- 친구 같은 아빠 '프렌디'가 뜬다
- 디지털 무언족(無言族)

## 저널 브리프

-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헨진

## 洗心錄

- 도량 있는 리더

## □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기조 유지

-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이로 인한 달러화 약세로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원유, 비철금속,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9월 말 현재 밀, 옥수수, 금 등 19개 상품으로 구성된 원자재가격 지수인 '로이터-제프리 CRB 인덱스'는 333.67을 기록, 지난 8월 말에 비해 한 달 만에 8.1% 상승하였음
  -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이는 수요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화 약세와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 등으로 원자재 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는 데다가,
  - 공급 측면에서는 전 세계 곡물재고율(연평균 소비량 대비 재고 비중)의 하락 등 원자재 공급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고 있음
- 향후 원자재 가격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9월 무역수지 24.9억 달러 흑자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한 295.5억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270.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입액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4일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수출은 품목별로 선박(전년동월대비 49.7%), 철강(18.4%), 석유화학(11.5%) 등이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원유(-0.8%)의 수입감소로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이 둔화되었음
- 지역별 수출은 중동(53.0%), ASEAN(49.1%), 중국(21.7%)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일본(2.3%), 미국(-0.3%)으로의 수출은 엔화약세, 美 경기하락 등으로 약세를 나타냄

□ GE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투명성

- (개요) GE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며 사업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멜트 회장은 ‘정직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에 사회적 소비와 투자가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하며 130년 역사의 GE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휘
  - GE는 매우 엄격한 윤리규정을 갖추고 자사 종업원은 물론, 거래업체, 관계사 등에게 높은 수준의 법과 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GE의 원칙) GE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으로 자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것이 철칙
  - GE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개개인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규범 준수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장치로 이해함
  - GE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수화 함

<GE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칙>

원칙	내용
정확성과 신뢰성 = 투명성 (Accuracy and Re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감사단이 보고서에 있는 모든 수치와 주장 검증</li> <li>• 외부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고서 작성에 참여시킴</li> </ul>
적시성(Timel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같은 시기에 발간하고,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웹사이트를 통해 갱신</li> </ul>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5년간의 측정치 제공</li> </ul>
균형(Bal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게 우호적인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 모두 제시</li> </ul>

자료: 한겨레신문, 2007.08.22

- (시사점) GE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와 개선의 원칙’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음
  -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정직하게 기술하는 태도야말로 기업 신뢰를 높여 사회적 책임투자를 끌어내는 촉매 구실을 할 수 있음
  - 기업으로서 이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윤리적으로 돈을 버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 친구 같은 아빠 ‘프렌디’가 뜬다

- 요즘 세대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기존의 권위주의적 아빠에서 친구 같은 아빠인 ‘프렌디’(Friend+Daddy)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이달 초 자녀가 있는 직장 남성 200명을 조사한 결과 69%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응답했음
  - 이런 추세를 반영해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두란노 아버지학교’ 등에서 아버지 역할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예전에는 아버지라는 지위만으로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시절이 됨

## □ 디지털 무언족(無言族)

-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과 인텟 채팅, 메신저 등 디지털 기기로 의사소통을 하며 ‘은둔’하며 살고 있는 ‘디지털 무언족’이 늘어나고 있음
  - 이들은 친구들과 직접 통화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서는 메신저로 동료와 대화하며, 출퇴근길에는 아이팟으로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고, 집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니 목청을 울리며 소리를 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대화를 하되 말을 하지 않는’ 앓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
- 디지털 무언족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으로 여김
  - 디지털 상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쌍방향성이 아니라 일방향성이 되기 십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내 할 말을 다 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주의적 대화법이 지배적임
  -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대량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를 즐기기도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개연성도 커짐

□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텐진\*

- (현황)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텐진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1980년대 선전, 1990년대 상하이로 중국 성장의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텐진 빈하이 신구’가 중국 경제의 제3의 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텐진 빈하이 신구 개발 내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5,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금융, 물류를 비롯한 서비스업 뿐 아니라 첨단 제조업 육성 등을 추진
  - 금융 : 2006년 금융 개혁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금융특구를 조성해 외국계 은행에 일종의 프리패스인 ‘녹색통도’(綠色通道)를 부여할 계획이며, 중국 개인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 등을 추진
  - 물류 허브 개발 : 텐진 빈하이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텐진 남항 일부와 동항 건설, 텐진 등장항 일대 보세구역 건설, 텐진~베이징간 고속철도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 : 금융, 물류는 물론 여행, 지식창조산업, 서비스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0억 위안을 투입, 20개의 현대식 서비스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
  - 첨단 산업 육성 :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52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자동차, 대형 항공기, 휴대폰 등 첨단 산업 생산 규모가 확대될 전망
- (전망) 텐진 빈하이 신구 개발은 한국에는 큰 위협이자 기회 요인임
  - 위협 요인 : 텐진 공항과 항구가 동북아 허브로 부상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의 동북아 허브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임
  - 기회 요인 : 완화된 금융 규제는 한국 금융 관련 업체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건설과 레저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활약이 기대되는 등 텐진 빈하이 신구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

\* 이 글은 『한경 Business』(2007.10.0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도량 있는 리더

泰山不辭土壤，河海不擇細流(태산불사토석, 하해불택세류). 史記에 나오는 말로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를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므로 태산처럼 크게 되었고 넓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깊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만약 태산이 ‘너는 작은 돌이니까 다른 데에 가라. 나는 너같이 작은 돌들을 상대도 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흙덩어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흙덩어리는 화를 내면서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 자신들뿐 아니라 비슷한 부류의 흙덩어리를 데리고 가며 태산 주변에서 떨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태산은 실제로 무수한 돌들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돌과 흙을 거부했다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이 없으면 큰 인물 또는 큰 조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넓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 특히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태산처럼 마음을 넓히고 도량을 크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힘을 더욱 길러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넓은 이해심을 필요로 한다. 도량이 큰 사람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이다.

회사에서 도량이란 무엇일까? 자신과 다른 가치관의 부하와의 대립에서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도량이 큰 상사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사원을 육성할 수 있다. 즉 상사가 회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때로는 웃기기도 하며 상사의 입장을 부하에게 납득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량이 큰 상사이다.

**리더십의 과제**는 인간에게 위대함을 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함은 이미 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존 버컨 (1875~1940) : 스코틀랜드의 작가, 외교관